



민 홍 기

간호원의 호명에 따라 대합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시골 아주머니가 크고 작은 세 딸을 데리고 한꺼번에 들어닥친다.

자못 신경질적이다. 순서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문진이 시작되었다. 약 6개월 전 부터 음부가, 그것도 속 깊이 가렵다는 것이다. 시초에는 대하증이 있었고 소변이 자주 마려웠으나 최근에는 자주 반복되는 가려움 외에는 별다른 국부증상은 없지만 불면증 때문에 피곤하고 피

로워 자기도 모르게 신경질이 난다는 것이 전부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와 함께 들어온 딸들도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가 함께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이는 큰애가 17세, 다음이 12세, 그리고 막둥이가 7세란다. 이들 네 모녀는 지난 6개월동안 지방의 모모하다는 병·의원을 전전하면서 진료를 받았는데 대체로 요강을 함께 쓰기 때문에 서로사이 에 옮겨진 성병이라는 진단 아래 상당액의 항생제를 주사 내지 내복으로 사용하였으나 별다른 효험이 없었고 정신신경과를 소개 받아 다녀보았으나 역시 차도가 없었다며 그들이 한가지로 이환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치료는 백방으로

받아보았다는 것이다.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여자의 질과 회음부에 장기간 간헐적으로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중 흔히 관심밖에도 두기 쉬운 것이 기생충성 질환임을 감안하여 우선 어머니의 질분비물을 채취, 검사 하였으나 질트리코모나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항문 주위 도말법에 의한 검사 결과 수많은 요충란을 발견할 수 있다. 뜻밖의 성과였다. 반킨을 투여하였고 국부의 청결을 보존토록 지시하였다. 그 후 이따금 장날에 찾아오곤 했는데 그런 증상으로 더 이상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요충감염률이 40~60%의 범위를 보였던 20여년전 필자의 개원 당시의 임상수기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날의 상황과는 크게 차이 질 것으로 생각되나 1981년도 의보건사회부 및 한국기생충학협회의 공식적 보고에 의하면 평균 12.0%로서 아직도 비교적 높은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다.

동양에 있어 요충은 중국의 황제시대(3,700 B. C.)에 이미 단충(短虫)이란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주말(300 ~ 200 B. C.)에는 그 구제법이 강구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편충, 회충 등과 더불어 인체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었고 그 증상이 지극히 극성스러웠던 것만은 사실인 듯 싶다.

요충은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열대지역 보다는 온대 및 한대지역에서 보다 흔히 발견되며 농촌 보다는 도시의 집단 생활 구성원들 사이에 있어 보다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

는데 특히 고아원이나 국민학교의 어린이들에 있어 높은 경향이 뚜렷하다.

사람에 있어서의 요충 감염은 자기 스스로의 항문 주위에 붙었던 충란이 손가락 등에 묻어 입으로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의 손과의 접촉으로 옮겨가기도 하며 만졌던 여러가지 기물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 항문 주위에서 부화한 애벌레가 항문안으로 되돌아가 직장내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성립되기도 한다.

손가락을 빨거나 입에 넣으면 감염된다



▲ 요충감염은 자기 스스로의 항문 주위에 붙었던 충란이 손가락 등에 묻어 입으로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의 손과의 접촉으로 옮겨가기도 하며 만졌던 여러가지 기물을 통해서 감염되기도 한다.

증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항문 주위의 가려움증인데 야간에 더욱 심하다. 이는 암컷이 산란하기 위하여 항문 주위 및 회음부로 기어나오기 때문이며 정말 참기 어려운 가려움이 유발된다. 어찌할 수 없이 긁게 되고 긁는 정도가 심하면 출혈, 습진, 화농등이 생긴다. 여

자에 있어서는 음문에 기어들어가 산란하게 되면 질로부터 분비물이 나오게 되어 성병에 기인된 대하증을 의심하게도 하며 드물게는 자궁, 나팔관 또는 복강에 까지도 기어들어간다.

특히 어린아이들에 있어서는 직장의 점막을 계속적으로 자극하면 고감신경 내지 천골신경이 자극되어 음경이 발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수음의 나쁜 버릇이 형성되기도 하고 누정이나 몽정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귀두염이 생기기도 한다. 때로는 식욕상실, 체중감소, 정서적 불안, 신경질, 불면증, 악몽, 야뇨증, 경련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손가락을 깨문다든가 코를 쑤신다든가 혹은 자면서 이를 간다든가 하며 주의력의 산만 내지 행동장애 등을 가져오는 소위 요충성 신경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가려움을 호소할 수도 없으며 손으로 긁을 수도 없는 유영아에 있어서는 심한 울음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다수의 요충이 직장에 기생하는 경우에는 격심한 장선통이 엄습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충이 소장까지 올라와 소화기능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매우 드문 예이지만 위, 식도, 인두, 구강, 비강 등에서도 성충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요충검사 특히 어린아이들에 있어서의 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함을 아무리 되풀이 하여도 부족한 것으로 믿는다.

검사의 필요성은 우선 증상이 있을 경우 올바르게 진단하여 구제함으로써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잡다하고도 성가신 증세로부터 일갈이라도 빨리 해방되기 위하여, 현재로는 증세가 없다 하더라도

도 양성·음성 교대 출현자가 있음을 생각하여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적인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올바른 진단을 얻음으로써 구제를 도모하여 건강하게 자라기 위하여, 나아가서는 새로운 전파를 미연에 막기 위하여 강조되고 있다 하겠다.

또한 요충은 많은 경우 유년충을 침범하기 때문에 학령전의 어린이나 영유아, 집단으로 수용될 수 밖에 없는 고아원의 어린이들에게도 검사의 기회가 정기적으로 주어졌으면 싶다.

검사에 있어 대변검사 보다는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한 항문주위도말법이 우수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자에 의하면 실제 감염자의 약 5%밖에 찾을 수 없다 한다. 후자에 있어서도 검사물의 채취 시간은 감염자 색출 빈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자고 일어난 이른 아침의 배변하기 전, 항문 주위가 어느정도 지저분한 상태에 있을 때가 바람직하다.

오래 전의 이야기이지만 요충감염의 역학조사를 위한 팀이 시골 소재의 모국민학교에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낸 뒤 예정된 날에 내려가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협조요청문서에 피검시의 주의 내용이 없었던 탓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오도록 지시, 당일 모든 학생들이 한결 같이 항문까지 깨끗하게 씻고 나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낭패스러운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되살아 난다.

(필자=이화의대기생충학교실·의박)